

장애받고 '부처님 음성' 찾는 행렬

광림사 연회복지학원 '팔공산 깃바위 순례' 동행기

2월25일 새벽 4시 팔공산 깃바위 가는 길. 살을 에는 찬공기에 별빛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시간임에도 정초 불교성지를 향하는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서울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신도와 부설 연회복지학원의 청각장애인(농아자) 47명도 5시간의 밤길을 달려와 성지순례에 오르고 있었다. 새벽이슬을 끼며 순례자를 맞이하는 열불독경 소리가 47명의 농아자에게 들릴리는 만무했지만 열불독경 소리따라 발걸음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저분들이 느끼는 감각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성미도 급하게 되죠." 스님의 말대로 일일이 수화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는 같은 한국인의 대화에서도 통역이 필요하다. 순례에 나선 농아자들에게는 소아 미비로 보행이 불편한 이병노씨(농아도교회장)와 10년전 망막과괴로

시작마저 잃어버린 최명석씨도 포함되었다. 특히 최씨는 수화를 통한 대화마저 어려운 상태. "절에 오기 전에는 좌절과 비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슬과 노름에 푹 젖어 있었습니니다." 지역보다 더한 절망의 수렁에서 구원의 빛이 되어 준 것은 부처님이었다.

신태남씨(41)는 "그동안 아내에게 못해준게 몹시 후회되는데"며 "새해에는 자비심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한 회원은 "이렇게 높은 곳에 절

"자정출발 새벽 5시 부처님 전 도착 마음으로 독경듣는 47 청각 장애인"

다. 장애인도 모두 불성이 있는 일 불제자임을 알고나서 느낀 환희심은 너무나 컸다. 그때부터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씨의 경우에는 부인과 아들도 불교를 믿는 불자가정이 됐다. 새벽 5시경, 마침내 부처님 전에 다다른 농아자들은 향을 사르고 촛불을 밝힌 다음 부처님 전에 참배했다. 끝없는 참회기도가 솟구쳐

나왔다. 손님들(41)은 "그동안 아내에게 못해준게 몹시 후회되는데"며 "새해에는 자비심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한 회원은 "이렇게 높은 곳에 절

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 불심이 너무 놀랍다"며 "불심을 키워 모든 장애를 극복해 나갈 자신감이 생겼다"고 감격해 했다. 한글수화를 주로 타종교인들이 만든 탓에 불교수화용어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태지만 농아자들은 이날 부처님과 수많은 법담을 나눴다. 수화어인 수화로 말없는 말을

담고 있는 불보살의 손모습(手印: 무드라)은 이들 농아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고 친근한 의미로 다가온다. 현재 불교수화연구원은 운영하고 있는 해성스님은 "수화가 불교에서 나왔다는 말도 전해진다"며 "불교수화 및 전문가 육성이 시급



5시간의 밤길을 달려 깃바위에 도착한 청각장애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환희심을 나타냈다.

한 과제"라고 말한다. 깃바위 성지순례를 마친 불자들은 인근의 은혜사와 동화사를 방문 후 금강에서 방생법회를 가진 다음 서울로 향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특별기고

인도의 설화집이나 민화집을 훑어보면 우리가 어려서 들던 호랑이와 까치, 호랑이와 토끼, 콩쥐팥쥐 등의 옛날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데 놀란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방식, 특히 가정에서 가족관계가 이루고 있는 끈끈한 유대 등 삶의 생각과 감정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이다. 바로 지난 며칠전 한국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도방문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김영삼대통령은 '신 실크로드'를 열기 위하여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양국 정상은 합의를 보았다는 보도도. 육



김양식 (한·인 문화연구회장)

이미 8세기초에 신라의 해초스님은 성지순례를 위해 인도를 여행했다. 1908년 한 고문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밝혀진 귀중한 역사적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른다.

이보다도 훨씬 앞서 우리는 인도와의 교류를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가야국 김수로왕에게 그 먼 백길을 따라 시집을 온 아유타왕국의 공주가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 아유타왕국은 그 땅에서도 가장 왕성한 국력을 펼쳤던 불교대국이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기원전 3세기 전후해서는 이땅에 불교가 전파되어 있었으며, 그 불연(佛緣)으로 말미암아 아유타왕국의 공주가 가야의 김수로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라 고 나는 믿고 있다.

이처럼 생각할 때, 이땅의 불교 도래연대는 기원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같이 이루어진 두 왕국의 교류는 양 왕국간의 긴밀한 유대와 신의가 이루어지면서 종교와 사상, 문화와 예술, 의식주의 양식들의 교류가 매우 자연스럽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한다. 김대통령의 인도 공식방문은 먼 거리에 서서 바라만 보던 양국의 국민감정의 불교를 터놓았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본다.

물론 양국이 직면한 경제 정치 등의 현안문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기원전으로부터 양국간에 이루어진 불교와 그 종교에 따른 사상과 철학 다양한 문화예술의 교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깊고 넓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내세울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 불교의 정신문화에서 비롯됐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에 있어서의 불교 인구는 겨우 1퍼센트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도땅에서 불교와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만 불교유적지에 남아있는 사원들에 불과하다. 그러한 자리에는 이미 아시아 불교국들이 자국의 불교사원들을 세워 거꾸로 인도땅에서 포교에 나서고 있다.

부다가야만 해도 중국, 태국, 스리랑카, 네팔, 일본 등의 불교사원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마치 각국의 불교를 인도땅에 역수출하듯이 포교에 힘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것이 일본이다. 넉넉한 자본으로 그들은 절 옆에 병원시설을 갖추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숙소를 지어 여행자들의 쉼 곳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한국불교계에서도 요 몇년간, 적어도 인도땅 4성지에 각각 한국절을 짓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조만간 그 땅에 우리의 절이 지어질 것이다. 그 공간을 통하여 한국불교는 무엇을 어떻게 그곳 인도인들에게 봉사하며 도움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승불교사상을 제대로 포교하고 선(禪)불교의 진수를 그 땅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으로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 인구는 9억에 미치지 못한다. 그중 겨우 1%에 지나지 않는 불교인구들과 불교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긴밀한 유대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일시적이거나 가시적인 행사위주가 아닌 진심이 담긴 지역사회 포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불교사상의 재정립과 올바른 불교정신문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인도에 잠재되어 있는 부처님가르침이 21세기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바란다.

새 실크로드와 한국불교

"제3캠퍼스 설립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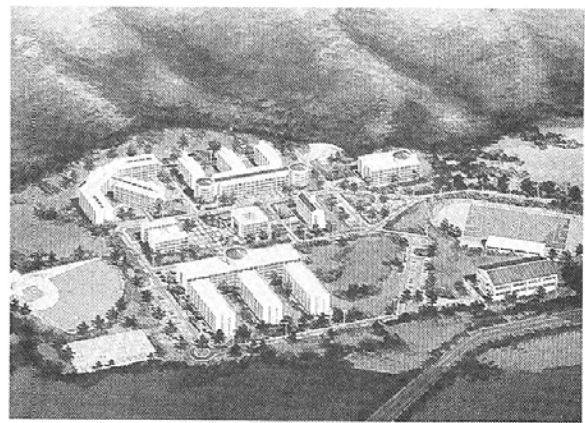
직제개편·수도권 종합병원 건립 필요

동국대 21세기 기획단 '학교발전' 설문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제개편, 수도권 종합병원건립, 제3캠퍼스 설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동국대 21세기 기획단(단장 정병조교수)이 최근 1년 동국 21세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서의 동국발전 전략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동국대 교직원 학생 동문등 8백 43명의 응답자중 교수와 직원 대부

분은 제3캠퍼스 설립을 우선과제로 들었으며 학생들은 직제개편과 수도권 종합병원 건립을 꼽았다. 대학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재단전입금 확보라는 대안이 전체 응답자의 75.7%를 차지했다. 이중 교수와 직원들은 대학경영합리화를, 학생들은 재단전입금 확보, 동문은 엄정한 인사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학교현황과 관련하여 교수 학생

김원우 기자



동국대 21세기 기획단이 최근 교직원, 학생, 동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국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제3캠퍼스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사진은 제3캠퍼스 조감도.)

"산신이 입원하여 병원의 과장님께 전신을 기증하니 연구를 잘 하셔서 의술을 발전시켜 병고를 제하소서 부탁을 하고나니 생사가 하나같이 마음속 역력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또 한번 불사같이 부처님 은혜다."

진영스님, 3월의 관악산은 새생명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스님은 이승의 웃을 벗어 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스님 가시고 안개 시는 이 사바세계에는 스님 잃은 슬픔보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보아신 최상승 보시의 유훈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두달



목타 (취재3부 차장)

임연배 (취재3부 차장)

진영스님 영전에 분향 올립니다

의 투병중에도 회고록을 쓰시며 구도자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고 이 나라 의화도들을 위해 육신을 보시하신 스님의 큰 마음은 관악을 뒤덮고 수미산을 넘어섭니다. 범어사 내인암

제품을 남아 있습니다. 교도소를 찾아 관측으로 동지날을 기뻐하고 군부대를 찾아 책과 파일로 장병들을 격려하시던 스님은 찾아 드는 절인의 어께도 다정히 두드리 주셨습니다. 그런 스님의 몸매 담낭암의 독초가 자라 기어아 왼쪽

면히 전해질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찬 세상 무덤까지 그 욕심을 안고 가는 못 증생들의 가슴에도 스님께서 보시하신 무수유의 참뜻이 비껴갈이 울릴 것이니 울 불 관악산 보광사 법당결에 피어날 만다라 꽃을 기다립니다. 도술에서 내려오는 국화향기 그윽한 스님의 영전에서 보시공덕의 불가사의를 전하는 스님의 욕성을 다시 들읍시다.

"입원을 할 때는 체중이 매일 줄고 몸보시 하고나니 이제는 체중 30kg에 불과한 정상이요 혈액도 맑아지네 마음이 정상되니 모두가 정상일세" (지난달 24일 입적한 진영스님의 '수미산 나그네의 회고록' 중에서)

예경·현공·천도교육

동산불교교육원 개강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제1기 강좌가 9일 개강한다. 이곳에서는 예경 현공 법회 천도 의식은 물론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 의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한문으로 된 의식문을 우리말로 옮겨 불교의식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교의식교육은 각종 불교대학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1년의 과정을 두고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는 동산불교의식교육원(02-732-1206~8)이 처음이다.

불교 성지 순례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3월 25일 출발 모집중(확정)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특별기획 3

-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 135만원
-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나-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플론나루아-시기리아-덤블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 145만원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제-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 230만원
-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 180만원
-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대)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현역 (일정조정 가능)